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대연1동 대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태양컴퓨터클러닝(대표 윤창선)의 재능기부로 ‘항기술술, 사랑나눔 세탁사업’을 추진한다.



대연3동 대연3동 새마을자율방역단(단장 이태형)은 6월 12일 대연성당 정문에 집결, 방역장비 및 방역단 인원 교육 등 방역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대연4동 대연4동 새마을자율방역단은 지난 6월 10일 학교, 하수구, 모기서식지 등 방역 취약지를 방역속독했다.



대연5동 대연5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연미)는 r1% 나눔, 사랑의 선물상자 전달, 모 어르신 50분에게 물레이, 두유, 건과류가 든 선물상자를 전달했다.



대연6동 대연6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화자)는 6월 18일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홀로어르신 등 30세대에 쌀 10kg 1포씩을 전달했다.



용호1동 바르게살기운동용호1동위원회는 홀로 사는 저소득 중장년층(5세대)에 5개월간 ‘훈훈한 밥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용호2동 용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성호)는 정마철 재난대비, 성습 침수지역 및 쓰레기 투기지역 일대를 돌아보며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용호3동 용호3동 새마을을 3개 단체는 6월 4일 어린이집 3곳과 전통시장, 이면도로, 섬자리 일대까지 '코로나 대응 민관합동방역'을 실시했다.

봉사는 나의 힘 “아플시간 없어요”

박외숙 감만1동 새마을부녀회장

“봉사 열심히 하면 아플 일이 어딴데요? 우리 아플 시간 없어요.”

감만1동에서 제일 바쁜 사람, 박외숙 새마을부녀회장을 만났다. 그녀는 물을 갖 남긴 컵아이를 엮고서 감만1동에 정착했고 38년이 지난 지금 이 동네 터줏대감이 다 되었다.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고 시아버지 병간호도 하며 평범한 주부로 30여년을 살았다. 어느 날 “언니, 재미난 데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하는 이웃의 권유로 새마을부녀회에 들어왔다. 새마을부녀회가 뭐 하는 곳인지,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인 줄로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동네 어르신들 위해 밥하고 반찬 만들고, 내 식구들 위해 밥 짓는 마음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감만1동은 홀로 계신 어르신도 많고, 어려운 살림의 이웃도 많아 부녀회원들이 돌볼 곳도 많다. 그래서 부녀회는 조손가족과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철마다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도 챙긴다. 매년 여름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기운 내 여름을 날 수 있

도록 삼계탕 한 그릇을 대접하고, 겨울이면 직접 감지를 담가 감장이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 든든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거든다. 손재주 있기로 소문난 감만1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손뜨개로 목도리 300개를 만들어 어르신들께 나누어드리기도 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봉사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감만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출동한다. 복지관 이용자도 시락 배달 일에서 부녀회원들이 맡은 일은 음식 재료 다듬고 볶고 설거지하는 것이다. 매일 28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 어내는 일, 힘들지 않냐고 묻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매일 하는 설거지도 봉사한다 생각하면 더 보람 되잖아요.” 그동안 해온 봉사활동 이야기기를 하는 내내 그녀는 활기차고 씩씩하다. 회원들과 함께 하면 못할 일 없다며 뭐든지 재미있다고 하는 그녀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회원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

그동안의 봉사활동 중 제일 기억나는



박외숙 감만1동 새마을 부녀회장(가운데)과 부녀회원들.

일을 몰았다. 지붕에 물이 세서 온 벽이랑 바닥이 곰팡이로 엉망이고, 난방도 고장 나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하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참 깔끔한 성격의 어르신인데 치우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되고, 집주인도 어려운 형편에 섰다. 수리도 못해주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를 비롯해 새마을 부녀회원 전부 두 팔 걷어붙이고 집수리를 해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렸다고 한다. 아직도

어르신은 그녀를 볼 때마다 집 깨끗이 잘 쓰고 있다며 그녀의 두 손을 잡고 고마워하는데 그럴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집에서 놀면 뭘해요.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작은 힘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보람되고, 봉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자기가 아니잖아요.”

고사리손으로 마스크 기부



지난 6월 10일 남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남구청을 방문하여 어린이용 마스크 100개를 기부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구청을 방문한 가족은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남구에 거주하는 다른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고, 좋은 곳에 사용돼 주세요”라며 어린이용 마스크 100개를 기부했다. 기부된 마스크는 아동이 거주하는 장애인시설에 전달되었다.

대견한 초등학생, 라면 기부



용호2동 오륙도초등학교 5학년 김민서(12), 최은석(12)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싶다며 ‘부산다누림’ 체험활동비로 구입한 라면 4박스를 등에 전달했다. 이 성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며 어린이들의 밝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테레사여고, 수제 손소독제 기탁



테레사여자고등학교 과학심화동아리(TSTM) 학생들은 지난 5월 28일 직접 만든 손소독제 42개를 남구에 기탁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 등교를 시작하면서 동아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직접 손소독제를 만들어 드리게 되었다.

‘사랑의 짜장소스 나눔’



(사)한국중식봉사나눔회 남구협회는 매년 5~6회 관내 복지관을 찾아가 짜장면 나눔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짜장면 대신 짜장소스와 바나나 등 2,350인분을 만들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지계골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감만어린이집 등에 나눔하였다. 어르신들의 좋은 호응에 7월에도 ‘사랑의 짜장소스 나눔’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만2동 희망의 리브하우스

온주민 힘모아 집수리 봉사



감만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 11일 수년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홀로 생활하던 박씨 어르신(66)의 집을 대청소하고 방역 소독 후 새단장까지 마쳤다.

이혼 후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가족, 외부인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던 박씨 어르신의 집은 수년 간 방치된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악취가 나고 해충이 들끓어, 이웃주민들의 고충도 매우 큰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던 어르신은 담당 사회복지사와 관할 통장이 매주 정기적으로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등 5개월간의 설득 끝에 집 청소와 동의했다. 이날 집수리 봉사에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동명), 남구지역자활센터, 감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윤영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안성하) 등 4개 기관과 단체 및 지역주민 등 총 17명이 참여해 3시간에 걸쳐 쓰레기를 치우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대청소가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씻지도 못했던 어르신은 감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명의 도움으로 목욕을 마치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었다.

대청소와 방역이 끝나고 며칠 후, 감만2동 청년회(회장 임선철)에서는 어르신댁의 집수리에 나섰다. 청년회 회원들은 더러워진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이 했다. 많은 주민들이 본인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본 어르신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결국 감사를 터트렸다.

김은정 감만2동장은 “수년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던 어르신이 관내 모든 단체, 주민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어려울 때마다 제 일 제쳐두고 도와주시는 주민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향후 꾸준한 안부확인도 상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 업무협약

지난 6월 23일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파크사이트 재활의학병원, 관내 복지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노인성질환과 후천성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은 퇴원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요양체계를 적극 활용에 지원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남구는 지난 6월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월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최영철(73세) 유공자에게 직접 명패를 달아드리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훈단체 모범회원 표창패 전달

남구는 지난 6월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단체 모범회원 가정을 방문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훈단체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대신, 보훈단체 모범회원 중 6.25참전 유공자가 정 2곳을 직접 방문해 표창패를 전달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